

1930년대 말 지식인의 현실 적응 양상 연구

- 채만식의 <少妄>을 중심으로 -

조 명 기*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레디메이드 人生>에서 <少妄>까지의 거리 |
| II. <少妄>의 내적 구조 분석 | IV. 결론 |

I. 서론

<레디메이드 人生>을 마지막으로 2년여간의 문학적 침묵기를 보냈던 채만식은 <明日>(1936)을 시작으로 <痴淑>(1938), <少妄>(1938), <敗北者の 무덤>(1939)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이 일련의 소설들이 문제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채만식은 급변하는 외부 세계의 성격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성격에 적합한 대응 자세를 모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¹⁾ 채만식 소설의 이같은 성격은 KAPF 해체기와 그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1930년대 전반 KAPF의 동반자 작가로 지목되었을 뿐만 아

* 中國 遼東學院 外語系 客座教授

1) 이주형, 「蔡萬植 문학과 否定的 논리」, 『韓國現代小說史研究』(전광용 외), 민음사, 1984, 251-259쪽 참조.

나라 콦유니스트라 자처²⁾하기도 했던 채만식으로서, KAPF 해체 전후의 급변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입각점을 구축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KAPF 구성원들처럼 전향 선언서를 내놓을만한 입장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는 KAPF의 맹원이 아니라 동반자 작가였기 때문이다.

위의 소설들이 문제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소설들이 지식인 소설이라는 점에 있다. 지식인 소설은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³⁾ 자기 몰입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⁴⁾ 소설 속의 지식인은 타당한 내적 논리성을 구비하려 하며 자신의 태도 변화를 합당한 논리로 해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채만식 소설을, 지식인에게 적대적인 금권지향적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로 평가⁵⁾하는 것이나 지식인의 자기 풍자로 평가⁶⁾하는 것은, 내적 논리 확보 지향성이라는 지식인 소설의 특성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년이라는 압중 모색기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 채만식의 경우 태도 변화 과정은 상당히 지난하다. 동반자 작가였던 채만식으로서 전향 선언서 같은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자신의 태도 변화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다.⁷⁾ 그런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면서도 태도 변화를 “너무 낮간지러운 표변”⁸⁾이 아닌 자연적·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편소설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단편소설이 유용한 도구가 된다. 채만식에게 있어서는 <레디메이드 人生>에서 <敗北者의 무덤>까지 이어지는 연작식 단편소설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소설들은 각각 앞 작품과의 유사성·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변화의 양상 또한 은밀히 내보이고 있다.

-
- 2) 채만식, 「나의 참회」, 별건곤, 1931. 1.
 - 3)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조영훈 옮김), 한마당, 1999, 53-54쪽 참조.
 - 4) 조남현, 『韓國知識人小說研究』(일지사, 1984), 213-214쪽 참조.
 - 5) 황국명, 「채만식 소설의 현실주의적 전략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0), 96쪽 참조.
 - 6) 이태수, 『蔡萬植 小說研究』(이우출판사, 1986), 57-59쪽 참조 ; 우한용, 「蔡萬植 小說의 談論 特性에 관한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1991), 34쪽 참조.
 - 7) 조남현에 따르면, 지식인들의 삶과 고뇌를 한 편의 소설로 양식화하는 데 있어서 同作者作家의 자세와 방법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조남현, 위의 책, 237-238쪽).
 - 8) 채만식, <레디메이드 人生>, 『정통문학대계』 6, 어문각, 1996, 168쪽.

<少妄>은 이 일련의 소설들 중 거의 끝 무렵에 속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이 시기 채만식이 진정 욕망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少妄>을 살펴보는 작업은, 이 한 작품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만식이 <레디메이드 人生>과 <明日>을 거쳐 <少妄>에 도달하는 궤적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는, <少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 소설의 내재적 의미를 살펴본 후, 그 의미를 다시 <레디메이드 人生>·<明日>과의 연속성 위에서 재검토함으로써 <少妄>의 담론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텍스트의 내적 구조 분석과 담론 분석을 병행할 것이다.

Ⅱ. <少妄>의 내적 구조 분석

1. 인물의 대립 양상과 그 의미

<少妄>은 아내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설화체 형식의 소설이다.⁹⁾ 아내의 대화 상대자로 언니가 등장하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아내를 거쳐 독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소설 내적으로 보자면 아내가 언니에게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지만, 소설 외적 상황으로 보자면 독자가 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아울러 아내의 시선·목소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이는 이집 야자씨더러 하등동 속물이란다우. 병자 고름 끊어서 돈이나 모을 줄 알지, 세상이 곤두서전 인간이 도야지가 되건 감각두 못허구 거저 맛있는 음식에 좋은 옷 편안헌 집에서 호박 같은 마나님이나 이뻐허구 그런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구.¹⁰⁾

9) 정한숙, 「봉괴와 생성의 미학」, 『민족문학연구』, 1973. 10, 144쪽 참조.

10) 채만식, <少妄>, 『정통한국문학대계』 6, 어문각, 1996, 206쪽. 이후 인용면의 쪽수만 기입.

“그것두 천하사를 도모하는 노릇이라면……”(212쪽)

나는 그이 눈을 주의해 보느라구 (…)/ 그런데 맘만 찬찬히 파구 보아야
전대루 정기가 돌구 맑지 머 아무렇지두 않아.(208쪽)

돈이야 부자질 안할 바에 기를 쓰구 모아서서 무얼 해.(206쪽)

그런 것은 나두 배심이 유해졌다우. 의식주 같은건 근심하지 말구서 왜가
는 대루 살아가기루……. / 정말이지 그런 건 죄꿈두 걱정두 안되구 위협두
느끼잖어요. 거저 그이만 몸을 도루 이르켜가지구 생화야 있던지 없던지 남
처럼 활달하게 나돌아 다니고 허기만 해주었으면 머 내가 어디가서 빨래 품
을 팔아다가 사흘에 한 끼씩 먹구살아두 좋아요.(210쪽)

남편은 이 집 아저씨 즉 손윗 동서를 하등동 속물로 비하한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하등동 속물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비판의식 없이 개인적인 생존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남편은 하등동 속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개인적인 생존이나 안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 다소 괴롭더라도 자식과 아내를 위해 소풍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괴로움을 참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은 “천하사를 도모하는” 일 정도라고 대꾸한다. 그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메리칸 놈들이 무얼루 오늘날 변영을 횡재했게? 귀곡성(鬼哭聲)이 이천만이 합창을 하잖나! 억울하다구…… 생때 같던 장정 이천 만명!”(213쪽)에서 알 수 있듯 오직 외부 세계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뿐이다. 그는 “책 디리 파기 신문 잡지 뒤치기”(208쪽)를 통해 “천하사를 도모”하기 위한 지식을 입수하는데, 이것이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이다.

남편은 아내를 “하등동물”(213쪽), “속물”(208쪽)로 지칭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녀는 오로지 남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만 관심을 쏟는 생활자이다. 남편이 규정한 대로 개인적 생존과 안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간을 속물이라 한다면 아내는 분명 속물이다. 그러나 아저씨와 아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인용문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물질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에 대한 욕망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남편이 정신적·육체적 건강(“남처럼 활달하게 나돌아 다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少畵>은 우선 남편←아내의 대립을 토대로 한다. 아저씨(언니의 남편)는 등장하지도 않고 언니의 목소리는 아내를 통해 전달되는데 반해 남편의 목소리와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직접인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남편←아내의 대립이 전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대립은 공적 담론(불합리한 외부 세계를 바로잡기 위한 언어들) ↔ 사적 담론(남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언어들)의 대립, ‘책·신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지식’←‘실질적인 생활’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띤다. 세상이 뒤집히다, 사개가 병그러지다, 장정이천만 명이 귀곡성을 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언어는 책·신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인 데 반해, 삼청동 풀이나 안양 피서 같은 구체적인 언어는 실질 생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는 남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데, ‘정기가 도는 맑은 눈’과 ‘정신병’이 그것이다. 이 모순적인 평가는 남편의 사고와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이 문제는 아내의 목소리·시선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비판 정신의 비순수성

아내가 언니에게 상의하는 것은 남편의 기행에 대해서이다. 내는, 남편이 말복에 겨울 양복을 입고 서울 종로를 활보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남편의 외출에 관해서는 소설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번 언급된다. 그런데 소설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과 뒷부분에 언급된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심결에 돌려다 봤지. (...) 그래 웬 사람인가 허구 자세 보니까 그이겠지! 그이가 쇠통 글썽 겨울 양복을 끄내 입었어요! 이 삼복중에 겨울 양복을.....(207쪽)

“왜 그래? 여름에 동복을 좀 입었기루서니 왜 죽는 시늬이야?” (...) “천민? 속물! 세상이 곤두서는데는 태평이면서 옷 좀 거꾸루 입은 건 저러야 단이야?”(207-208쪽)

“온갖 인간들이 더우에 행복히는 백기 대신 최저한도루다가 옹구 시언한 옷을 입구서 그리구서두 허어덕 허덕, 썰매구 다니는 종로 한복관에 가 당당허게 겨울 옷을 입구서 처억 버티구 섰는 맛이러니! 그게 어땡데 통쾌했

는데!”(214쪽)

“그까짓 속충(俗虫)들이 될 일아서? 어어허 그 친구 토론투해하다! 이 소리 한 번 치는 놈 없구 모두 피씩피씩 웃지 아니면 녀이 나간 놈처럼 멍허니 입을 버리구는 처이다보구 섰지.”(214쪽)

“그리구 참, 내 올라오면서 싸전 가게 앞으루 지내와봤는데……” (...)
“응, 길을 피해서 풀지두 았구 맘을 티억 놓구사, 고개를 들구서 팔을 커다랗게 치면서 그 앞을 어엿하게 지내왔단 말이야 아주 당당히…… 그래! 그 게 해방이란 거야 해방! 해방은 유쾌헌 거야 유쾌헌 거야!”(215쪽)

첫 번째 인용문들은 소설 앞부분에 나온다. 여기서는, 아내가 겨울 양복을 입은 남편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장면과 남편이 겨울 양복을 입은 의도가 제시되어 있다. 아내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그의 눈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정기가 도는 맑은 눈이다. 삼복 더위에 겨울 양복을 입는 행위는 맑은 판단력의 작용으로, 곤두선 세상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세상에 대한 타인들의 무관심을 지탄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뒷부분에서는 겨울 양복을 입고 외출했을 때 남편의 심정 그리고 타인들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는 곤두선 세상을 비판하면서 통쾌함을 느끼지만 속물인 타인들은 그의 통쾌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소설 뒷부분은 두 가지 점에서 앞부분과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남편의 정기 도는 맑은 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복된 언급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데, 또 하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두 번째 차이점이란 뒷부분에는 종로 외출 외의 다른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다. 곤두선 세상을 비판할 때 통쾌함을 느꼈다는 발언에 뒤이어, 남편은 외상을 지고 있던 싸전 앞을 유유히 걸어 지났으며 그 때 해방감과 유쾌함을 느꼈다고 실토했다.

소설 앞부분에서는 겨울 양복을 입고 세상을 비판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맑은 눈만이 제시되는 데 반해, 뒷부분에서는 겨울 양복을 입고 통쾌해하는 장면과 싸전 앞을 지나면서 유쾌해하는 장면이 나란히 놓여 있다. 소설 앞부분에서 강렬하게 전개되던 세계 비판의 모습(겨울 양복 착용)은 소설 뒷부분에서 또 다른 장면(싸전 앞 통과)과 묶이면서 본래의 의미를 의심받고 훼손당한다.¹¹⁾ 남편의 종로 외출은 순수한 비판 정신에서 비롯된 상징적 행위인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또 다른 행동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다.

3. 지식 폐기의 과정과 지식인의 자의식

소설 중간에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는 종로 외출의 의미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에피소드는 그 내용에 따라, ①신문사 사직, ②집에서 더위와 싸움, ③짜전 우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신문사 사직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자. 남편은 신문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신문사 인심두 얼”(210쪽)지만, “그런 것을 현신작 벗어 내던지듯 내던”(210쪽)진다. 그가 신문사를 사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남편이 평소에 “눈동자가 옹게 백힌 놈은 이짓 못해먹겠다”(210쪽)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신문사를 사직한 이유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신문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올바른 비판정신을 소유한 그가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려고 하지만, 신문사는 그의 비판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 동료나 손윗사람허구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생긴 것두 아니구 거저 불시루 그날 그 자리서 사직원을 써서는 편집국장 앞에다가 내놓구 나”(210쪽)온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의견 충돌도 없이 5년 동안 신문사의 인심도 얻고 사장의 각별한 대접을 받아왔던 이유는, 신문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판적 정신이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문사 재취업 권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신문사는, 처음엔 편지를 보내고 다음엔 정치부장을 보내고 그 다음엔 편집국장을 통해 사장의 편지를 보내어 그에게 재취업을 권유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그는 “몸이 건강털 못해서 일감당을 못하

-
- 11) 겨울 양복을 통해 세계를 비판하는 모습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경우, 다시 말해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짜전 앞 통과 장면과 겨울 양복 착용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경우, <少妄>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진정한 욕망을 놓치게 된다. 나아가, “빛이라는 압박 상황은 더 큰 압박 상황인 식민지 처하의 상태와 대응되어 해방이라는 의미가 식민지 상태로부터의 해방, 즉 독립을 암시”(박미경, 「蔡萬植小說의 知識人像 研究」,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40쪽)한다는 건강부회식 해석을 하게 된다.

졌다는 핑계만”(210쪽) 델 뿐, 신문에 대해 어떠한 요구나 비판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신문을 포함한 이 세계에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과 세계의 의사 소통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강렬한 비판 정신을 감추는 것이다.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정신을 맹렬하게 드러내기도 하는데, 집에서 더위와의 싸움이 그것이다.

내가 얼마를 즐겼다고! 그래두 영 도래질이야. 그리구는 헛웃 소리가 나
를 목을 비벼봐라? 단 한발이라두 서울서 물러서나……이러는구려!(209쪽)

“이 속물아! 내가 이렇게 꼼짝 앉구서 처백혀만 있으니까 아무 내력 없이
그러는 줄 알아? 나는 이게 싸움이야 이래봐두…… 더위우가 나를 보꾸니까
누가 못 견디나 보자구 맞 겨누는 싸움이야 싸움!”(213쪽)

시골집에 내려가 있자는 아내의 제의에 남편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에게 있어 서울은 전쟁터다. 그리고 그가 싸우는 상대는 더위다. 더위와의 싸움은 너무나 격렬해서, “밤바다야 혼그은”해져 “걸레를 집어다가 닦”(212쪽)아야 할 정도이다. 신문을 사지했던 남편의 시각에서 보자면, 말북 더위와의 싸움은 폭압적인 파시즘과의 싸움을 상징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남편의 투쟁은 적어도 두 가지의 심각한 변형을 거친 후에야 표면화된 것이다. 서울→전년방이라는 투쟁 공간의 변형, 그리고 파시즘과의 싸움→더위와의 싸움이라는 투쟁 대상의 변형이 그것이다. 그는 바람 한 점 없는 건넌방에만 누워 있는데, 이 공간은 너무나 더위 아내마저 거의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전년방은 남편 혼자 투쟁하는 공간, 타인과의 교류가 차단된 공간이다. 투쟁의 대상 또한 군국 파시즘이 아니라 더위로 바뀌어 있다. 문제는 더위의 상징성 자체가 아니라 상징의 효과기능, 다시 말해 더위의 상징적 의미가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는 투쟁의 대상을 극단적으로 변형시킨 후 타인과의 교류가 차단된 공간에서 자신의 비판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문사 사직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강렬한 비판 정신은 외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설혹 그가 타인(아내)에게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설

명할지라도 그의 투쟁은 정신병으로 간주되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아내는 두 번째 인용문과 같은 남편의 설명을 듣지만, “내 원, 어처구니가 없어서……”(213쪽)라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남편의 투쟁은 그 강렬함과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변형으로 인해 개인적이고 소아적인 기행으로 간주된다.

그는 타인에게 자신의 투쟁정신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외출이 그것이다. 그런데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종로 외출이 다시 언급되기에 앞서 사전 우회와 먼저 제시되고 있다.

그이 허는 짓을 좀 봐요. 시골 내려간 줄루 거짓말을 허구서는 그담부터는 그앞으루 지내다니기가 안됐으니깐 화동 서씨네 집을 갈 때면은 곧장 내려와서 가회동으루 넘어가달 못허구서는 위정 중앙학교 뒤루 길을 피해 비잉빙 돌아다니는구려!(213쪽)

사전 우회와 통과와 특성은,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의 성격과 의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사전에 20원을 빚지고 있는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종의 도피인 우회라는 점이 첫 번째이다. 신문사를 사직할 때 그는 자신의 비판적 정신을 은폐하며, 설혹 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위와의 투쟁으로 변형된 다음이며, 사전의 빚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도피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가 세계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마디로 은폐·변형·도피이다.

사전 우회의 두 번째 특성은, 그것이 외상값 20원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¹²⁾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종로 활보는 “천하사를 도모하는 노릇” 즉 공적 담론인 데 반해, 사전 앞 통과는 개인적인 것 즉 사적 담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남편은 종로 활보와 사전 앞 통과와 구분을 없애 버린다. 남편은 종로를 활보했을 때의 심정을 ‘통쾌’로 표현하고 사전 앞 통과 때의 심정을 ‘유쾌’로 표현한다. 이 두 행위는 ‘통쾌, 유쾌’라는 동질의 감정으로 묶이면서 등가의 행위가 되어 버린다. 세계에 대한 투쟁은 더위와의 싸움으로 변형된 후 급기야는

12) 아내도 남편도 가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少妄>은 가난 혹은 가난의 원인에 대해 말하는 소설이 아니다.

싸전 앞 지나기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시즘에 대한 투쟁(공적 담론) → 더위와의 싸움 → 싸전 앞 지나기(사적 담론)의 순으로 변형되면서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천하사를 도모하는 일” 외의 것에 대해서는 속물적이라고 비판하던 남편의 태도는 이로 인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셋째, 남편은 파시즘에 대한 투쟁과 싸전 앞 지나기를 “통쾌, 유쾌, 해방”이라는 동질의 단어로 묶어 버린다. 아내는 싸전을 우회하는 남편을 빈정거리고 있고(“사람이 그렇게 소심하다구는! 그런 걸 보면 천하 즐장부야!”, 214쪽) 남편은 타인을 속물로 비하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싸전을 우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지식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체면 때문에 싸전 앞을 지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종로 외출은 그가 지식인으로 취한 최후의 행동이다. 종로 외출이 끝난 직후 그는 싸전 앞을 지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유쾌”를 경험하게 된다. 그가 “통쾌”해 하는 이유는 비록 변형된 모습으로라도 외부 세계에 비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며, 그가 “유쾌”해 하는 이유는 세계 비판의 의무감, 지식인의 자의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종로 활보와 싸전 앞 통과는 지식인의 자의식이라는 고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싸전 앞 통과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의무감·체면을 포기하는 상징적 행위이며, 싸전 앞을 통과하면서 해방과 유쾌를 느꼈다는 실토는 지식의 종말을 선언하는 자기 고백인 셈이다. 이 선언적 자기 고백을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말복날 종로에 나가 더위와의 싸움을 과시한 후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가 끓여준 닭을 “큰 바리루 하나를 다 먹구 또 주발루 반이나”(215쪽) 더 먹는다. 그가 말복을 이기는 방법은 속물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말복 더위는 더 이상 파시즘을 상징하지 않는다. 다만 남들처럼 “연계 세 마리”(214쪽)를 먹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더운 날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더위의 상징적 의미마저 훼손되기에 통쾌·유쾌·해방이라는 발언은 목표 지향적 의도에서 나온 지극히 자의적인 발언이다.

결국, 남편의 행위에 대한 아내의 해석은 정확한 것이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그대지 못 낫수? 이견 과천(果川)서 뽕 맞구, 서울 와
서 눈 흘기기 아니우? 제엔장 마질 차라리 뛰쳐나서서 냅다 한바탕…… 응?
그럴 것이지, 그렇잖우.(215쪽)

뽕을 맞은 과천에서 “냅다 한바탕” 하지 못하고 서울에 와서 눈을 흘기기만 하듯, 남편은 파시즘의 세계에는 맞서지 못하고 더위와 싸우기 위해 종로를 확보하며, 다시 더위가 아니라 싸전의 압박(개인적인 문제, 지식인의 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전 앞을 유유히 지난다. 아내는,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변형들이 부당한 것임을 위 인용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투쟁의 대상과 방법을 변형시킨 이유는 폭압적인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세계가 극도로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기에, 투쟁 주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투쟁의 대상과 성격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내와 종로 대중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문제는 투쟁의 효과기능이 변형의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데 있다. 지식인이라든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호소하는 자들이라는 점¹³⁾을 전제할 때, 의사 전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투쟁은 진정한 투쟁일 수 없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의 행위를 “천하사를 도모하는” 투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아내의 비판(위 인용문)은 옳다.¹⁴⁾

투쟁의 목적 달성이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면서도, 남편이 투쟁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소설 <소돔>의 담론적 의미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13) 에드워드 W. 사이드, 『권력과 지성인』(전신옥·서봉섭 옮김), 도서출판 숲, 1996, 21쪽 참조.

14)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남편을 돌았다고 보는 아내를 작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래수, 「狀況과 作家意識」, 『현대문학』, 1979. 12, 350쪽 참조 ; 이주형, 「蔡萬植 小說 속에 나타난 日帝下 인텔리의 運命과 抵抗」, 『국어교육연구』 9집,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77, 46쪽 참조 ; 신동욱, 「蔡萬植의 小說研究」, 『동양학』 12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1, 17-18쪽 참조 ; 한시현, 「반어법의 성격과 작가의 시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489-490쪽 참조. 그러나 이런 해석은 연구자의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

Ⅲ. <레디메이드 人生>에서 <少妄>까지의 거리

1. 전사로서의 <레디메이드 人生>과 <明日>

채만식은 외부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이다.¹⁵⁾ 1934년에서 1938년에 걸친 외부 세계의 변화 양상과 이에 따른 채만식의 태도 변화 양상은 <레디메이드 人生>(1934년), <明日>(1936년), <少妄>(1938년)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흔적들을 따라가면 외부 세계의 변화 양상 그리고 이를 충실히 추종하고 있는 지식인과 만나게 된다.

<레디메이드 人生>에서, 외부 세계는 지식·도덕이라는 덕목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덤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은밀히 구축해가고 있다. 지식인 P는 외부 세계의 속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¹⁶⁾ 인생관을 과시한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자신의 변신을 “너무 낮간지러운 표변”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정받기 위해 매춘부를 매개로 삼는다. 그는 외부 세계에 이미 충실히 적응한 매춘부를 옹호하고 지식인과 매춘부를 동류의 인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모방하고 학습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숨은 욕망 즉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지만, 이 과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풍자라는 표피 속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KAPF 해체 직전의 채만식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과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며, 명(名, 이념, 대외적 관심과 봉사정신)과 분(分, 삶, 자기 유지의 생존 욕구)의 조화점을 마련하고자 한다.¹⁷⁾ 그리하여, 채만식은 ‘지식·정당한 인생관의 강조-물질적·경제적 착취의 은폐’라는 지배계급의 은폐-노출 전략을 구조적으로 모방하고 자기화한다. 그는, 부르주아 세계를 지향하려는 욕망을 변형·은폐¹⁸⁾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저항 정신을 과시하는, 은폐-노출 전략¹⁹⁾을 구사하

15) 아주형, 「蔡萬植 문학과 否定의 논리」, 251-259쪽 참조.

16) 채만식, <레디메이드 人生>, 185쪽.

17) 조남현, 『일제하의 지식인 문학』, 평민사, 1978, 55쪽 참조.

18) P는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양복, 담배, 길 가는 여자 등으로 변형하여 은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명기, 「지식인의 위상과 현실 대응 전략」, 『현대소설연

고 있는 것이다. 결국 <레디메이드 人生>은, 동반자 작가라는 기존의 입장과 세계 변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온 교묘한 사상 전향서인 셈이다.²⁰⁾

2년 간의 문학적 침묵기를 보낸 후 채만식이 발표한 <明日>은 작품 자체에서 뚜렷이 드러나듯 <레디메이드 人生>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제적·물질적 욕망을 은폐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과시하는 범수의 태도는 P의 은폐-노출 전략을 완전히 자기화한 모습이다. 그러나 범수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레디메이드 人生>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레디메이드 人生>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을 은폐하기 위해 지식인의 자의식·

구』 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9를 참조할 것.

- 19) 은폐-노출 전략은,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가치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개별적 욕망을 은폐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은폐-노출 전략의 구사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당위적 가치를 노출 덕목이라 하고자 한다.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한, 노출 덕목은 허위가 아니며 그 자체 강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략 주체의 개별적 욕망을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은폐 덕목은 감춤의 대상일 뿐 봉쇄의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 덕목은 현실 세계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덕목이다. 그러나 이 덕목이 표면화될 경우 주체는 자신과 타인에 의해 강력한 제재와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은폐-노출 전략은, 두 덕목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자신과 타인의 동의 속에서 주체의 개별적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을 더욱 필요로 하는 부류는 지배계급이다. 따라서 이 전략의 확산은 지배계급에 대한 모방을 의미한다. 피지배계급은 생존을 위해 은폐 덕목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 때 피지배계급은 은폐-노출 전략 자체 또한 모방하게 된다. 결국 피지배계급이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현 세계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행위가 된다. 은폐-노출 전략은 지배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모방과 주체화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은폐-노출 전략은 현실과 외관의 거리를 찾아내고 극대화하여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을 지향하는 아이러니와는 정반대의 것이 된다. 지배적 질서에 편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이러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최문규, 『문학이론과 현실 인식』, 문학동네, 2000, 99쪽).
- 20) 김현 또한 <레디메이드 人生>은 “무산 인텔리 집단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119쪽). 박태원의 상당수 지식인 소설도 물질적 욕망과 자본의 논리에 대한 주체의 양가적 태도를 지배적인 서사 대상으로 초접화하고 있다(공종구, 『박태원의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 『현대소설연구』 1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6, 209쪽 참조).

비판의식을 과시하는 작가 전략²¹⁾의 산물이다. 반면, <明日>의 채만식은 노출 덕목(지식·비판정신)과 은폐 덕목(물질적·경제적 욕망)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은폐-노출 전략을 비판하고 해체한다. 개인은 두 가지 모습을 지닌 모순된 존재 즉 지식·비판정신을 보유한 지식인 그리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생활인으로 그려지는데, <明日>은 지식인의 자기 부정을 감행한다. 지식인의 비판의식·전망 탐구는 “자기 기만”, “뇌수의 사치”로 비하되며 물질적 욕망이 “더 절박한 것”²²⁾이 된다. 이제 은폐-노출 전략은 사치일 뿐이며 지식은 물질적 욕망의 보호막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질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한 것이기에, 지식 뒤에 은폐되어 있던 물질적 욕망을 지식으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明日>의 작가는 아주 완고한 목소리로, 은폐-노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비판하고 노출 덕목의 폐기와 은폐 덕목의 전경화를 주장한다.

<明日>에서 작가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외부 세계의 변화 때문이다. 이즈음 본격화된 일제의 군국 파시즘은 조선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바람 한점 없이 숨이 탁탁 막히”²³⁾는 극단적 억압의 형태로 행해지게 된다.²⁴⁾ 이는 또한 은폐-노출 전략의 포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출 덕목의 포기를 의미한다. <明日>의 채만식이 은폐-노출 구조를 해체하면서 은폐 덕목을 강조하고 노출 덕목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외부 세계의 이같은 변화 내용을 신속하게 자기화한 결과이다.²⁵⁾ 결국 <明日>의 채만식은, <레디메이드 人生>과의 연속성을 통해 자신의 내적 논리성·정치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작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단절의 내용 즉 지식인의 자기 부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21) 정효용,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숲, 1994, 120쪽 참조.

22) 채만식, <明日>, 『정통한국문학대계』 6, 어문각, 1996, 27쪽.

23) 채만식, 위의 책, 12쪽.

24) 신동욱, 앞의 논문, 17쪽 참조.

25) 범수의 저항의식이 <레디메이드 人生>의 P의 경우보다 구체적이며 범수는 화신주택에 사는 일인의 안락을 비꼬고 있다는 설명(이주형, 『蔡萬植 小說 속에 나타난 日帝下 인텔리의 運命』, 12쪽)은 작의적이다. 맑은 눈은 부정의 대상이며, 화신주택의 일인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다.

2. <少妄>의 담론적 의미

<明日>에서 들리던 작가의 생경한 목소리가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少妄>인데, <少妄>이 <明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少妄>은 <明日>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明日>에서와는 달리 <少妄>의 작가는 뒤로 물러나 있다. 아내가 작가를 대신해 남편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시작되기 직전 소설이 종결되는 등 결말이 열려 있기에 아내가 관찰하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쪽은 독자이다. 둘째, <明日>의 범수↔작가의 대립이 지식↔물질적 욕망의 대립이었다면, <少妄>의 남편↔아내의 대립은 지식↔정신적·육체적 건강(생존)의 대립이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생존)이 물질적 욕망을 대신해 지식의 대립항이 되었다. 다시 말해, <少妄>은, 생활은 한쪽으로 밀어놓은 채 지식의 가치와 효용만을 다룬다. 지식은 물질적 충족을 저해하는 데서 나아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비판적 지식·정신을 드러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극도로 극악해진 파시즘 때문이다. 따라서, <少妄>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은 지식인의 자의식·비판정신↔파시즘의 외부세계의 대립이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식인의 자의식뿐이다. 이 자의식마저도 힘겨워하는 것이 1938년 채만식의 모습이다.

외부 세계는 이미 단순하고 명쾌한 파시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 복잡하고 유연한 그래서 내면화의 긴 시간을 요구하는 전략 즉 은폐-노출 전략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군국 파시즘처럼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단순하고 분명한 사회에서는 ‘은폐-노출’ 전략 같은 미로는 추방당한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 소설의 지식인 주인공들은 여전히 지식을 노출 덕목으로 간주하면서 세계에 대한 비판 정신을 과시하려 했다. <明日>에서는 이 부적합한 전략으로 인해 물질적 욕망이 위협받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少妄>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듯 극단적으로 진행되

26) 자크 아탈리, 『미로-지혜에 이르는 길』(이인철 옮김), 영림카디널, 1997, 28-29쪽 참조.

기에, 남편이 과시하는 지식·비판정신은 “자기 기만”·“뇌수의 사치”(〈明日〉)를 넘어 “少妄”으로 내몰린다.

지나친 변형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나 효과를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다면, 비판 정신·의식의 표출이란 것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싸전 앞을 지남으로써, 지식인의 무의미한 의무감·책임감에서 “해방”되는 “유쾌”함을 경험하게 된다. <레디메이드 人生>과 <明日>에서 노출 덕목으로나마 유지되어 왔던 지식인의 비판 정신·책임감은 <少妄>에 와서 완전히 폐기되고 만다.²⁷⁾ 비판적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생활인으로서의 개인만이 더욱 “절박한”²⁸⁾ 모습을 한 채 남게 된다. 이 소설은, 지식이 있다고 믿었던 곳에는 정작 욕망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²⁹⁾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채만식은 지식인의 사명을 몰랐던 것³⁰⁾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련의 소설들에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은밀히 정당화하고 있으며 특히 <少妄>에서는 지식인의 의무감과 책임의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자기 고백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아내의 판단을 올바른 것으로 수긍함으로써 채만식의 이러한 자기 선언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셈이며, 채만식이 바라는 것 또한 이것이다.

27) 이같은 현상은 유진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1935년 이후 현민은 관념 성향을 거의 포기해버린 「박제된 지식인」을 그의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다(조남현, 『일제하의 지식인 문학』, 101-102쪽 참조). 그러나 유진오의 <金講師와 T教授>는 외부 세계의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의 비판정신 포기를 어쩔 수 없는 ‘소멸’로 그려내고자 한다. 반면, ‘폐기’라는 단어는 ‘소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성격을 띤다. 본고가 <少妄>의 남편이 보여주는 지식 포기 양상을 ‘폐기’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明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식 포기 욕망이 <少妄>에 와서 은밀하고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8) 채만식, 앞의 책, 27쪽.

29) 들뢰즈·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조한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94쪽 참조.

30) 최하림, 「蔡萬植과 그의 一九三〇年代」, 『현대문학』, 1973. 10, 295쪽.

IV. 결론

본고는, 채만식의 <少妄>을 <레디메이드 人生>, <明日>과의 관련 하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少妄>은 남편↔아내의 표면적인 대립에 기초하고 있다. 이 대립은 지식·비판 정신↔정신적·육체적 건강(생존)의 대립, 공적 담론↔사적 담론의 대립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물질적 풍요는 기대하지 않고 단지 생존만을 염려하는 아내가 “친하사를 도모”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남편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여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평가는 “정신병”과 “정기가 도는 맑은 눈”으로 요약된다. 이 상반된 평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 소설의 핵심이다.

둘째, 남편이 말복에 겨울 양복을 입고 종로를 활보한 사실은 <少妄>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소설 앞 부분에서는 외출의 의의와 아내의 반응만이 나타나 있다. 이 때의 종로 외출은 파시즘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로 외출과 싸전 앞 통과가 나란히 놓여 있다. 종로 외출에서 느꼈던 “통쾌”는, 싸전 앞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해방, 유쾌”와 결합하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셋째, 신문사 사직, 집에서 더위와 싸움, 싸전 우회와 같은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 종로 외출에 대한 두 번의 언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은 폭압적인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신문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한다. 그리고, 그는 서울→건넌방이라는 투쟁 공간의 변형, 파시즘과의 투쟁→더위와의 투쟁이라는 투쟁 대상의 변형을 거친 다음에야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 정신을 드러낸다. 이 두 에피소드는 은폐·변형으로 인한 의사 소통의 불가능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다. 남편이 비판 정신을 은폐하고 투쟁을 변형한 이유는 폭압적인 파시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남편은 이미 외부 세계에 패배할 준비가 되어있는 셈이다.

넷째, 남편이 종로 활보 때의 감정과 싸전 앞 통과 때의 감정을 “통쾌”, “유쾌”라는 동질의 것으로 묶어내는 것은,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을 등가로 취급

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 자신의 진정성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동안 싸전 앞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식인의 자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싸전 앞을 통과하면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실토하는 것은, 지식인의 자의식의 무감에서 “해방” 되겠다는 자기 고백적 선언인 해당한다.

다섯째, <少妄>은 <레디메이드 人生>, <明日>을 전사로 하고 있다. 지식인이 외부 세계의 은폐-노출 전략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 <레디메이드 人生>이라면, <明日>은 작가가 직접 나서서 은폐-노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지식인을 비판하고 물질적 욕망이라는 은폐 덕목을 강조하는 소설이다. <少妄>은, 지식인이 은폐-노출 전략을 포기하면서 지식·비판정신을 스스로 폐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은폐-노출 전략의 포기, 지식의 폐기는 파시즘의 강화라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결국, <少妄>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폭력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가 아니라 지식인의 지식 폐기·비판 정신 포기 선언이며, 독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선언에 대한 동정적 인정이다. 지식의 폐기 선언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것이 <敗北者의 무덤>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주제어: 대립, 지식인, 비판 정신, 변형, 은폐-노출 전략, 폐기, 선언

참고문헌

- 공종구, 「박태원의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 『현대소설연구』 1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6.
- 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 박미경, 「蔡萬植小說의 知識人像 研究」,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 신동욱, 「蔡萬植의 小說研究」, 『동양학』 12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1.
- 우한용, 「蔡萬植 小說의 談論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이래수, 「狀況과 作家意識」, 『현대문학』, 1979. 12
- 이래수, 『蔡萬植 小說研究』, 이우출판사, 1986.

- 이주형, 『蔡萬植 小說 속에 나타난 日帝下 인텔리의 運命과 抵抗』, 『국어교육연구』 9집, 경북대 사범대 국어 교육연구회, 1977
- 전광용 외, 『韓國現代小說史研究』, 민음사, 1984.
- 정한숙, 『붕괴와 생성의 미학』, 『민족문학연구』, 1973. 10.
- 정호웅,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솔, 1994.
- 조남현, 『일제하의 지식인 문학』, 평민사, 1978.
- 조남현, 『韓國知識人小說研究』, 일지사, 1984.
- 조명기, 『지식인의 위상과 현실 대응 전략』, 『현대소설연구』 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9.
- 최문규, 『문학이론과 현실 인식』, 문학동네, 2000.
- 채만식, 『나의 참회』, 별건곤, 1931. 1.
- 채만식, <레디메이드 人生>, 『정통문학대계』 6, 어문각, 1996.
- 채만식, <明日>, 『정통한국문학대계』 6, 어문각, 1996.
- 최하림, 『蔡萬植과 그의 一九三〇年代』, 『현대문학』, 1973. 10.
- 한지현, 『반어법의 성격과 작가의 시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 황국명, 『채만식 소설의 현실주의적 전략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0.
- 들뢰즈·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조한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조영훈 옮김), 한마당, 1999.
- 에드워드 W. 사이드, 『권력과 지성인』(전신욱·서봉섭 옮김), 도서출판窓, 1996.
- 자크 아탈리, 『미로-지혜에 이르는 길』(이인철 옮김), 영림카디널, 1997.

<Abstract>

An Aspect of a Abolition of the Intellect in the Chai, Man-Sik's *A Little Madness* 少妄

Cho, Myung-Ki

This paper is aim to analysis the *A Little Madness* 少妄, a characret and meaning of the severance being hiden under the continuity with the *Ready made life, Tomorrow* 明日. The contents of this dissert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A Little Madness* is stand of the basis of the antagonism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and the wife's unilateral statement. This antagonism is a intellect:critical will↔mental:physical health, public discourse↔private discourse. Second, Several episodes mean the impossibility of the mutual understanding because of the concealment·transformation of a conflict, and ostentation of critical will. Third, It is the intellectual's confession of "liberation" out of the intellectual's self-consciousness, sense of duty, to bind the public discourse and the private discourse into a "thrill, pleasure". Finally, concealment-exposure strategy devoted usefully in the *Ready-made life* is criticized by the author in the *Tomorrow*, is been a target of the sweeping abolition in *A Little madness*.

This novel is aim to declare abolition of the intellectual's critical will, have a expectation a sympathize recognition about the declaration.

Key Words: antagonism, the intellectual, critical will, transformation, concealment-exposure strategy, abliton, declaration.